



인물검색

>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

SEARCH

신혜원 가정법 변호사 "요즘엔 여자 외도가 늘었죠"

Aug 8, 2007 12:00:00 AM

기사메일 보내기

기사 프린트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축소

기사카테고리

- 최신기사 전체보기
- 인물
- 사회
- 머니
- 문화
- 종교
- 스포츠

이혼을 숨기거나 창피하게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미 한국에서는 이혼 사유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나올만큼 이혼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미국 한인사회에서도 이혼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한인들의 이혼 이유는 어떤 것들일까. 10년 이상 수많은 가정법 관련 케이스를 담당해온 신혜원 변호사는 한인들이 이혼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도, 가정폭력, 알콜 및 마약중독, 음란을 중독, 극심한 성격차이 등 때문이라고 전했다. 외도의 경우 예전에는 남자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여자쪽이 늘어나고 있으며 외도에서 유발된 가정폭력 및 또 다른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가정폭력의 경우 예전처럼 폭행을 당한 배우자가 사실을 숨기거나 창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거짓 진술을 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미루는 사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폭행을 당하지 않은 배우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거나 폭행을 당한 배우자가 방어 차원에서 폭행자를 밀어내다 엉뚱하게 가해자가 되는 일도 있다. 또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채팅, 음란 동영상 등에 빠져 이혼을 하는 경우도 예전보다 늘어났다.

신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을 신청하는 부부의 연령층이 20대 신혼부부부터 70대 부부까지 다양해졌으며 매일 이혼상담 전화가 쇄도해 일일이 상담을 접수받기 힘들 정도다. 그는 "미국 이혼법은 합리적이고 냉정한데 한인들은 이혼을 감정적으로만 판단해서 결정할 때가 많다"며 "미국에서는 이혼에 대한 과실을 따지지 않고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 한쪽만이 이혼신청을 해도 접수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변호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혼하는 순간까지 자녀를 법적인 무기로 사용하는 부모를 보면 안타깝다. 부모가 선택한 이혼이 자녀를 탈선시키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인가정상담소 피터 장 소장에 따르면 이혼상담을 하거나 이혼을 결정하고 상담소를 찾는 한인이 전체의 40%를 차지할 만큼 이혼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천유진 기자>

Like Send

이전기사

다음기사 ▶ 헬리 이 KAFE 공동회장 "한인 커뮤니티 관심 절실"

나도한마디!